



PART 1

원시의 인류에게 자연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마음속 두려움 속에서 상상되는 최초의 신들은 기괴하고 산처럼 커다란 괴물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한 괴물들, 산만한 덩치에 수레 같은 눈 하나를 이마 한가운데 달고 천둥으로 울고 번개로 내리치는 괴물들은 이렇게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기괴한 신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던 원시의 시대를 지나 드디어 천신크로노스의 여섯 번째 아들 제우스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쫓아내고 하늘의 패권을 장악했다. 하늘은 평정되었고, 세상은 새로운 신들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었다.

문명, 원시 속에서 몸을 일으키고



처음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이 광활한 심연이었으니 그것은 카오스, 즉 혼돈이었다.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처럼 난폭하고 빛 하나 없는 어둠으로 텅 비어 있는 우주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았다. 밤과 어둠이 전부였다. 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태어났다. 그리스의 희극 시인인 아리스토파네스 Aristophanes 이 창조는 이 창조의 순간을 어둠 속에서 돌연 터져 나오는 웃음처럼 묘사했다.

칠후 날개 달린 밤이
 어둡고 깊은 에레보스Erebus의 품으로 날아드니
 바람에 실린 알이 하나 톱,
 세월이 흘러 흘러 알이 깨져
 황금 날개 찬란히 빛나는
 사랑이 광터져 나왔네.

밤의 여신 닉스Nyx가 어둠의 신 에레보스와 사랑을 나누어 그 사이에서 알이 하나 생겨났다. 닉스는 밤을 의인화한 여신이다. 에레보스는 지하의 어둠, 즉 사람이 죽어 눈이 감겼을 때 처음 느끼는 죽음의 어둠을 의인화한 것이다. 모두 카오스의 자식들이며, 서로 남매지간이었으나 부부가 되었다.

생명은 심연 속의 어둠, 즉 지하 세계의 죽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은 신화의 중요한 모티프다. 이것은 죽음, 지하 세계로의 하강 그리고 재탄생의 농업적 주기를 상징화한 것이다. 하나의 씨앗이 죽어 썩어지니 그 땅속의 암흑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낱알이 싹터 부활한다. 그러니 알로 상징된 생명이 밤과 어둠의 결합으로부터 탄생되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알이 부화하여 껍질을 깨고 황금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사랑은 존재하는 것들끼리 서로 짝짓게 만들었다. 사랑이 태어나자 암흑의 혼돈을 거두어가기 시작했다. 사랑은 빛과 함께 낮을 만들어냈다. 이윽고 대지가 만들어지고 하늘이 생겨났다. 호메로스 이래 가장 독특한 또 한 명의 그리스 시인이었던 헤시오도스 Hesiodos는 《신통기Theogony》속에서 만물의 생성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렇게 써 내려갔다.

넓은 가슴을 가진 풍요로운 대지가 일어섰네
 대지는 만물의 굳건한 발판이니
 아름다운 대지는 자신의 짝으로
 별이 가득한 하늘을 가장 먼저 낳았다네
 다시 하늘은 대지를 품 안에 가득 안고
 축복받은 신들이 머무는 영원한 거처가 되었다네

먼저 풍요로운 대지가 하늘을 낳고, 그 하늘을 다시 지아버로 하여 둘의 사랑으로 세상의 만물들이 생겨났다. 그리스인들에게 천지창조의 신화는 없다. 신이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가 신들을 만들어냈다. 하늘과 땅

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 신들을 만들어냈으니 삼라만상이 모두 의인화된 크고 작은 신들이 되었다.

원시의 인류에게 자연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마음속 두려움 속에서 상상되는 최초의 신들은 기괴하고 산처럼 커다란 괴물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한 괴물들, 산만한 덩치에 수레 같은 눈 하나를 이마 한가운데 달고 천둥으로 울고 번개로 내리치는 괴물들은 이렇게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기괴한 신들이 서로 뒤엉켜 싸우던 원시의 시대를 지나 드디어 천신(天神) 크로노스(Kronos)의 여섯 번째 아들 제우스(Zeus)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쫓아내고 하늘의 패권을 장악했다. 하늘은 평정되었고, 세상은 새로운 신들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었다.



• chapter 1 •

영웅의 모험, 그 시작을 알리는 판타지



모험,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는 삶의 여로

인간은 신들의 질서 속에서 세상에 태어났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와 에피메테우스 Epimetheus, 두 형제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물들을 만들게 했다. '나중에 생각하는 자' 에피메테우스가 상상력에 따라 가지가지 동물을 만들어내고 동물에 따라 되는 대로 그 특별함을 주었다. 민첩함을 주기도 하고, 날개를 달아주기도 하고, 딱딱한 껍데기로 스스로를 보호하게도 해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남자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이미 재료를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었다. 당황한 에피메테우스는 '미리 생각하는 자'인 현명한 형 프로메테우스에게 달려가 난감함을 호소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고귀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불을 훔쳐와 인간에게 주었으니 인간을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요긴한 무기로 불만 한 것이 없었다.

천상의 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지나친 인간 편애에 분노했다. 더욱이 예지력이 뛰어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도 모르는 비밀 하나를 알고 있

었다. 그것은 제우스가 언젠가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찬탈당하고 쫓겨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을 알게 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그 아들을 낳게 될 여인의 이름을 말하라고 다그쳤다. 어머니를 잃어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침묵했다.

그러자 제우스는 그를 잡아다 코카소스 산의 바위에 묶어두었다. 제우스는 자신의 전령신인 헤르메스 Hermes를 시켜 그를 설득하게 했으나 프로메테우스는 조개처럼 입을 다물어버렸다. 제우스는 그에게 매일 독수리가 간을 파먹는 고통을 주었다. 파먹힌 간은 다음 날 다시 생겨나 매일 똑같은 고통이 반복되게 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굴복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파먹는 독수리(쿠스타브 모로의 그림)

◆ 프로메테우스는 그 후 신들도 두려워하는 영웅 헤라클레스 Herakles에 의해 이 지독한 형벌에서부터 구출되었다. 제우스가 이를 용인한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마음을 바꾸었는지는 모른다. 그 또한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프로메테우스 역시 그와 화해하여 풀려나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었을지도 모른다.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비를 좇아낸 제우스가 언젠가 다시 그 자손에게 쫓겨나리라는 것은 영원한 무의식의 강박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세대는 언젠가 반드시 지나가고 자식의 시대가 오며,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세상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상정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시간의 비극이며 또한 축복이다.



불행과 저주가 세상에 나오고, 희망은 상자 속에 남다. G. F. 와즈

하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를 징계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작품인 인간에게도 형벌을 주었다. 그 방법이 지극히 그리스적이다. 먼저 제우스는 인간의 여자를 만들어 올림포스 신들에게 그 신이 가진 특별함을 선물하게 했다. 각각의 신들로부터 그 신만이 가진 가장 특별한 특성을 부여받은 이 여인의 이름은 판도라Pandora였다. 판도라는 ‘모든 선물’이라는 뜻이다. 판도라는 신들로부터 모든 것, 즉 강점과 약점, 저주와 축복 모두를 받은 여자가 되었다. 제우스는 한 사람 안에 너무도 많은 대립적

요소들을 넣어두면 그것들이 서로 부딪치고 갈등해서 하루도 고통과 번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하여 모순, 갈등, 패러독스, 딜레마가 바로 태초의 인간의 조건이 되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로부터 아름다움을 선사받은 판도라는 명칭이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졌다. 그녀가 너무 예뻐기 때문에 에피메테우스는 신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지 말라는 형의 말을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신처럼 아름다운 판도라를 얻은 아내로 맞이들었다. 그녀는 천상의 신들로부터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상자 하나를 받아왔는데,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

하고 그 뚜껑을 열고 말았다. 상자에 담겨 있던 모든 불행과 저주가 세상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오직 희망만이 그 상자 속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후 악과 불행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도 인류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으며 살게 되었다. 제우스의 뜻대로 되었다.

세상은 갈수록 사악해져갔다. 황금의 시대를 살 때 인간은 선량하고 평화로웠으나 은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로 질투하여 싸우기 시작하더니, 청동의 시대에는 끝내 서로 때를 지어 전쟁을 하게 되었다. 잠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영웅의 시대를 맞더니, 끝내 철의 시대에 이르렀다. 사악함이 세상을 뒤덮고 인간은 고생과 슬픔으로부터 하루도 벗어날 길이 없었다. 힘이 정의가 되었고, 선량한 사람은 악한 자가 되어 더욱 살기 어려워졌으며, 범죄를 보고도 분노하는 자가 없었고, 누구도 가엾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다.

제우스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다. 아흐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퍼부었고, 가장 높은 산 파르나소스 꼭대기만이 겨우 남아 있었다. 미리 홍수의 대재앙을 알고 있었던 프로메테우스는 아들인 데우칼리온Deucalion에게 단단하고 커다란 나무 상자를 준비하고 먹을 것을 저장해두라고 일켰다. 비가 쏟아지자 데우칼리온은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딸인 피라Pyrrha와 함께 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홍수가 끝나자 세상에는 아무런 생명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살아난 것을 신들에게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지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대지의 뼈인 돌맹이를 등 뒤로 던지자 땅에 떨어진 돌들이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 수많은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돌의 종족의 시대가 열렸다. 그들은 굳건하고 참을성이 많은 종족이었다. 이렇게 인류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시인은 노래한다.

생명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다.

낱알 하나가 죽어 수십 배의 생명으로 솟아나듯

죽음의 어둠을 거치지 않은 탄생은 없는 법.

해는 아침마다 어둠의 밤과 산에서 떠올라

한 번도 새로운 날의 약속을 어긴 일이 없으니, 다시 시작하라.

‘미리 생각하는’ 위대한 프로메테우스가

신의 우아한 형상으로 남자를 빚고

‘모든 선물’의 여인 판도라가 최초의 여인이 되니

우리는 모두 대지의 뼈로 만들어진 존재.

불행 속에서도 뼈가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면 언제나 희망은 있는 법.

페르세우스,

그리스 최고의 판타지 모험을 시작하다

몇 년간 톱툰이 신화를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무사이(뮤즈)의 아홉 여신들이 달빛 같은 맨발로 헬리콘 산의 나무 사이를 바람처럼 뛰어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느낀다. 가끔 그들은 내 집의 뒷산을 춤추듯 오르내리기도 한다. 아주 먼 옛날 시인의 영혼에 깃들여 인간과 신들의 이야기를 시로 지어 노래 불렀듯이 지금도 시인에게 찬란한 영감으로 찾아들고, 그

렇게 만들어진 시인의 노래가 되돌아 인간을 감동시킨다.

시인뿐이 아니다. 작곡가든 미술가든 조각가든 가수든 무용수든 칭하여 예술가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무사이 여신들이 문득 천둥처럼 찾아와 가슴을 뒤흔들고 내 속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되어 단 한번의 손짓으로 심혼을 흔드는 불멸의 대작을 만들어내기를 염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그렇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 한 부분은 여전히 한 인류로서 중세인이며, 고대인이며, 그리스인이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인류의 모든 과거가 살아 숨 쉬고 있다가 어떤 야생의 순간에 원시의 순수한 힘으로 우주적 교감을 이루게 될 때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신적 시선은 의식의 혁명을 겪게 된다.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원시의 신화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기가



청동의 집을 짓고 다나에를 가두다. 에드워드 번 존스

기하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단연 페르세우스의 신화다. 더욱이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리스 영웅들의 최초 모험담이기도 했다. 21세기의 영화관에서도 이리저리 각색되어 심심찮게 상영되는 스토리다. 달콤한 동화적 요소와 경쾌한 마법이 초콜릿처럼 녹아 있을 뿐 아니라 러브 스토리가 있고, 통쾌한 반전과 보복이 풍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원형 판타지 신화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극적 재미를 모두 갖추고 비극으로 태어났으나 신들이 그를 돕고 용기가 그를 일으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마법과 칼로 영웅이 된 사람의 모험으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의 용사이며, 용사 중의 용사 헤라클레스의 직계 조상이다.* 제우스가 아버지다. 반인반신의 영웅답게 평범한 출생을 불허한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Akrisios에게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니에였다. 왕은 공주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원했다. 그리하여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의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얻게 되었다. 아들의 점지는 없었다. 그 대신 신탁은 치명적이었다. 딸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왕을 죽일 것이라는 पै가 나왔던 것이다.

◆ 서기 2세기경에 살았던 그리스의 여행가이며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Pausanias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페르세우스가 미케네 왕국을 건설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웅변가인 이소크라테스Isokrates는 페르세우스가 헤라클레스의 4대조 조상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의 시대 구분으로 보면 크레타 문명 다음에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이 시작되었다. 크레타 문명이 미노스 왕의 전성기를 지나오는 동안 미케네는 겨우 전설의 시대가 태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들도 겨우 생겨나기 시작했다. 반은 역사적 인물로 알려진 아테네의 테세우스Theseus는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볼모로 잡혀간다. 신화 속에서 크레타의 미노스 왕은 테세우스보다 한 세대쯤 위고, 헤라클레스와는 비슷한 동시대 인물이다. 페르세우스가 헤라클레스의 4대조 조상이라면 미노스 왕보다도 윗세대의 인물이 된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를 가장 먼저 다루었다.

왕은 딸을 죽여 후환을 없애야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지하에 청동의 집을 짓고 천장 한 부분만 빛과 공기가 통하게 한 뒤 그 속에 다니에를 가두어두었다. 아름다운 그녀는 무덤처럼 외진 방에서 청동의 벽에 하루의 햇빛이 일렁이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으로 긴 세월을 견뎌야 했다. 어느 날 그 일이 발생했다. 다니에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천신 제우스가 황금 소나기로 쏟아져 다니에가 갇혀 있던 방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녀의 몸이 자신을 받아들여게 했던 것이다. 다니에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이름을 페르세우스라고 지었다. 아이의 탄생을 오래 숨길 수는 없었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아이가 제우스의 아이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왕은 다니에와 젓먹이를 커다란 나무 상자에 넣고 바다에 던지게 했다. 파도와 바람을 받아 요동치는 나무 상자 속에서 다니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품에 안고 달래주었다.

상자는 작은 섬에 이르렀다. 그리고 착한 어부에게 발견되었다.** 어부 부부는 두 사람을 친자식처럼 돌봐주었다. 평화로운 시절이 계속되고 페르세우스는 청년이 되었다. 그러나 지루한 일상의 평화만 있었다면 영웅도 평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으리라.

다니에의 아름다움에 욕정을 품은 그 섬의 왕 폴리덱테스Polydectes는 다니에를 차지하고 싶었다. 이미 늙은 청년이 되어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 페르

◆ 다니에가 어린 페르세우스를 안고 도착한 섬의 이름은 세리푸스 섬이다. 모자를 구해준 어부의 이름은 디티스Diktyis이며, 교활한 폴리덱테스 왕의 친형제다.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다. 왕의 형제면 존귀한 신분이며 부유한 생활이 가능할 텐데 왜 어부가 되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신화 속에는 유난히 이런 설정이 많다. 왕의 친형제이면서 어부나 농부나 목동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왕이 되지 못한 형제는 권력의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특히 그 왕이 포악하거나 불안정한 인격의 소유자라면 더욱 그렇다.

세우스가 눈엣가시 같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페르세우스를 제거할 방법을 찾았다. 왕은 교활했다. 자신이 곧 결혼할 것이라고 알리고 잔치를 열어 그 섬에 사는 친지들을 불렀다. 페르세우스도 초대되었다. 모두들 왕에게 신부를 위한 선물을 바쳤지만 가난한 페르세우스는 그럴 수가 없었다. 젊은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진귀한 선물을 하겠노라고 장담했다. 왕이 웃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고르곤*의 머리를 베어 왕에게 선물하겠다고 대답했다. 자존심이 강한 페르세우스는 스스로 젊음의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나에를 차지하겠다고 말했다. 페르세우스는 자신을 격동시킨 폴리덱테스에게 속아 목숨을 건 모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쳤으나 이미 늦고 말았다. 영웅은 몸을 일으켜 고르곤을 죽이기 위해 모험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평민 페르세우스는 이 지점에서 영웅 페르세우스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 고르곤Gorgon의 복수형인 고르고네스라고 불리는 세 명의 괴물 자매를 말한다. 고르곤은 '강한 자' 라는 뜻이다. 세 자매의 이름은 각각 '힘'이라는 뜻을 가진 스텐노Sthenno, '멀리 날다'라는 뜻을 가진 에우리알레Euryale 그리고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막네 메두사다. 바다의 신들 중 하나인 포르키스Phorcys와 케토Ceto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스인들에게 바다는 곧 삶이었다. 항해 중에 만나는 모든 위험은 의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화로 흡수되었다. 그래서 바다의 신들의 자녀들은 모두 이런 위험을 상징하는 흉측한 괴물들로 투영되었다. 세 명의 고르고네스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메두사다. 영어에도 그 자취가 남아 있다. 영어로 'medusa'는 해파리를 가리킨다. 먹이를 찾아 촉수를 꿈틀대는 해파리는 마치 뱀의 머리카락이 꿈틀대는 메두사의 머리처럼 보인다. 또 '형클어진 머리채'를 일컫을 때도 'medusa locks'라고 한다. 가끔 고르고네스 세 자매 속에 에키드나Echidna를 끼워 넣기도 한다.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따르면 에키드나 역시 포르키스와 케토 사이에서 난 딸이기 때문이다. 여자의 상체에 뱀의 하반신을 가지고 있는 에키드나는 어두운 동굴에 산다. 페르세우스의 모험을 다룬 시시한 영화 (타이탄)에 등장하는 메두사는 사실은 에키드나의 이미지를 영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에키드나는 제우스조차 곤욕을 치렀던 거대한 괴수 티폰과의 사이에서 기괴한 괴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모든 괴물들의 어미로 불린다.



페르세우스 (에드워드 번 존스)



제우스는 경솔한 약속으로 곤경에 빠진 아들 페르세우스를 도와주기 위해 두 명의 신을 보내주었다. 하나는 아테나 여신으로 그녀는 고르곤의 막내 메두사(Medusa)를 죽여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아테나는 빛나는 방패를 페르세우스에게 빌려주었다. 메두사의 눈과 마주치면 살아 있는 것들은 모두 돌로 변하기 때문에 반짝이는 방패를 거울 삼아 메두사의 얼굴이 비치게 한 다음 거울 속의 거리와 모습으로 가늠하여 메두사의 목을 치게 했다. 또 하나의 수호신은 헤르메스였다. 천상의 올림포스 열두 주신(主神) 중에서 가장 어린 막내로서 매우 영리하고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제우스가 가장 귀여워하여 자신의 전령으로 삼은 상업과 도둑의 신이다. 헤르메스는 용의 비늘로 덮인 메두사의 목을 단칼에 벨 수 있는 보검을 빌려주었다. 방패와 보검을 얻게 되자 페르세우스는 용기백배하여 메두사를 찾아 떠났다.

그러나 여신 아테나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녁의 님프들인 헤스페리데스(Hesperides) 자매에게 맡겨진 세 가지 무기를 더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헤스페리데스가 어디 사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녀들은 서쪽 끝에 있는 헤라의 정원에서 황금 사과를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헤스페리데스 자매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야 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머나먼 서쪽의 끝으로 가서 해가 전혀 비치지 않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 명의 노파를 찾아갔다. 그들은 그라이아이(Graiai)라고 불렸는데, 이 말은 '빛같이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백발의 노파들'이라는 뜻을 얻게 되었다. 이 괴이한 여인들은 한 번도 젊었던 적 없이 처음부터 노파로 태어났다. 하나의 눈알을 가지고 셋이서 번갈아 봐야 하고 하나의 이빨로 번갈아 씹어야 하는 가련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메두사에게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으며, 메두사를 죽이는 데 꼭 필요

한 세 가지 무기가 있는 곳을 아는 유일한 길잡이들이었다. 페르세우스는 한 노파가 하나의 눈알로 망을 보다가 교대하기 위해 다른 노파에게 눈알을 인계할 때 재빨리 그 눈알을 낚아챘다. 하나밖에 없는 눈알을 빼앗기자 노파들은 당황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죽이기 위해 얻어야 하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눈을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노파들은 세 가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저녁의 님프들이 사는 곳을 알려주었다.

페르세우스는 헤스페리데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그들은 마치 세 가지 무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진정한 주인이 찾아와 돌려주는 것처럼 선선히 페르세우스에게 그것들을 내주었다. 세 가지 무기는 다음과 같았다. 하나는 날개가 달린 샌들이었다. 신의 전령 헤르메스가 신고 있는 신발과 비슷한 것이다. 또 하나는 메두사를 죽인 다음 그 머리를 담을 키비시스(kibisis)라는 은으로 만든 배낭이었다. 그래, 머리카락이 굼뜰굼뜰 모두 뱀이고,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석화시키는 강렬한 눈빛을 가진 메두사의 머리를 그냥 들고 다닐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물은 머리에 쓰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는 하데스의 투구였다. 이 투구를 쓰고 접근하면 메두사는 페르세우스를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날개 달린 신을 신은 페르세우스는 하늘을 날아 메두사가 은닉한 곳으로 잠입했다.

시인은 노래한다.

어제, 또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들,

고요한 일상의 호수에 문득 돌맹이 하나

다른 운명이 어울려 찾아온다네.

어리석고 위험한 젊음이 하나가
불행을 찾아 떠나네, 그것이 젊음이기에.

험준한 산을 넘고 깊은 계곡에 갇히며
기괴한 노파와 비밀스러운 요정에게 묻고 또 물어
빛나는 방패와 휘어진 칼로
마음속 괴물의 두려운 목을 자르네.
두려움을 이기니 바로 그 일이 진정한 영광.

메두사, 한때 넘실대는 머릿결을 가진 강렬한 눈빛의 여인이었으나

기원전 2세기의 그리스 학자인 아폴로도로스(Apollodoros)에 따르면 메두사는
등에 날개가 달려 있고 온몸에 두꺼운 용의 비늘이 덮여 있어 보통의 칼로는
찌를 수 없었다고 한다. 강력한 청동의 손을 가지고 있

고, 입가에는 사나운 멧돼지의 엄니가 달려 있었
다. 가장 끔찍한 것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모두 뱀들로 혀를 날름거릴 뿐 아니라 메두
사의 눈빛이 너무도 강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눈과 마주치면 돌이 되고 만다
는 점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강



혀를 뱀문 메두사의 얼굴상



메두사의 목을 단칼에 베는 페르세우스, 에드워드 번 존스

의 괴물 중 하나가 바로 고르곤이다. 고르곤이라는 이름 자체가 '강하다' 혹은 '굳세다' 라는 뜻이다. 그들 중 두 명은 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고 유일하게 막내인 메두사만 죽일 수 있었다. 그래서 보통 고르곤은 메두사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처음부터 페르세우스의 목표는 메두사였다.

하데스의 투구를 쓰고 몸을 감춘 페르세우스는 고르곤 자매들이 잠들어



포세이돈과 메두사에서 태어난 페가소스

있는 곳까지 조용히 숨어들어 아테나의 방패에 비친 그녀의 목을 내리쳤다. 헤르메스의 보검은 너무도 날카로워 용의 비늘로 보호된 단단한 메두사의 목도 단칼에 잘라냈다.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다. 번쩍 치면 메두사의 눈빛이 사납게 빛났으나 페르세우스는 그 눈빛과 마주치지 않고 마법의 배낭을 벌려 뱀들이 넘실대는 메두사의 머리를 담았다. 다른 두 자매가 잠에서 깨어나 페르세우스를 쫓지만 하데스의 투구를 쓴 그는 삼베 바지에 방귀 사리지듯 흔적도 없이 도주했다.

그러나 메두사를 사랑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그녀를 그냥 죽게 놔두지

않았다. 메두사의 잘린 목에서 피가 흘렀는데, 그 속에서 천마 페가소스가 태어나 힘차게 울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했다. 말은 포세이돈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다. 메두사의 목은 페르세우스에게 잘려 페르세우스의 영광을 기리는 장식품이 되고 말았지만 메두사의 영혼은 죽는 순간 하늘의 별이 되어 되살아났다. 아테나가 별한 것을 포세이돈이 보상해준 것이다.*

신화 속의 메두사는 두 개의 대극적 가치를 모두 붙들어 품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메두사는 괴물이면서 동시에 매혹적인 여인이다. 죽음이면서 또한 부활이다. 희생된 자이면서 죽인 자와 결코 다르지 않은 동질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이야기 속에 여러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테나는 메두사의 목에서 흘러나온 두 종류의 피를 받아두었다가 의신(醫神) 아스클레피오스(Asclepius)에게 선물했다. 왼쪽 혈관에서 나온 피는 독약으로 마시면 즉시 죽고 말지만 오른쪽 혈관에서 나온 피는 죽은 것을 되살려내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피를 이용하여 죽은 영웅들을 살려내기도 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그가 필멸의 인간 세상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판단하여 벼락을 내리쳐 죽게 했다. 같은 몸에서 나온 피가 하나는 독약이고 또 하나는 신령한 생명의 피다. 의술의 힘으로 죽은 자를 살려냈으나 그것이 자신의 죽음으로 갚아

* 아테나와 포세이돈은 계보로 보면 숙질간이다.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형제이고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이니, 포세이돈은 아테나의 삼촌이다. 이들은 묘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도시국가 아테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티카 지역에는 여러 공동체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아테나와 포세이돈 사이에 경쟁이 붙었는데, 아티카 지방에 가장 적합한 선물을 주는 신을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삼기로 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내리쳐 아크로폴리스 주변에 아름다운 바닷물 호수를 만들어주었다. 아테나는 척박하여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번성할 수 있는 수종인 올리브나무를 자라게 해주었다. 심판관들은 아테나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었다. 그래서 아티카 주민들은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삼고, 그녀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아테네라고 지었다. 포세이돈과 아테나는 메두사 사건을 놓고도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연인으로, 또 하나는 자신의 신전을 어지럽힌 신성모독의 악녀로 인식하는 불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야 하는 업보가 되고 말았다. 이런 이원적 대립 장치는 그리스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유체계였다.

메두사 신화의 중이성은 가해자로서의 아테나와 희생자로서의 메두사 사이의 동질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승에 따르면 괴물이 되기 전에 메두사는 처녀신 아테나와 미모를 견줄 만큼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다고 한다. 특히 물결치는 머릿결이 대단히 매력적이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다. 메두사에게 반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그녀를 유혹하여 아테나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눴다. 정사였는지 겁탈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만일 겁탈이라면 메두사는 신에게 농락당한 가여운 희생자다.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테나는 자신의 신전을 더럽힌 메두사를 용서할 수 없었다. 포세이돈에게 겁탈당한 메두사는 다시 한 번 아테나의 저주를 받아 참혹한 괴물로 변하고 말았다. 특히 아테나는 물결을 연상시키는 메두사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미워했다. 그리하여 한 올 한 올 모두 혀를 날름거리는 뱀으로 둔갑시켰다. 그리하여 그녀는 비련의 주인공이며, 저주 어린 괴물이 되었다. 메두사는 처음에는 포세이돈에 의해 희생되었고, 두 번째는 아테나에 의해 희생되었다. 두 번 다 가련한 희생물이 되었던 것이다.

신기하게도 희생된 메두사와 그녀를 징벌한 아테나 사이의 유사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메두사의 가장 큰 특징은 넘실대는 뱀 머리카락과 모든 것을 돌로 변하게 하는 석화의 안광이다. 그런데 아테나의 상징성 역시 뱀과 눈빛이다.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하는 도시 아테네의 창설자 케크롭스(Kekrops)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뱀인 사람으로 묘사된다. 조각가 페이디아스(Pheidias)가 파르테논 신전의 감실에 키가 거의 천장에 닿을 만큼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을 만들면서 여신의 상징인 거대한 방패 뒷면에 서리서리 뱀을 휘감아두었

다. 아테나는 뱀과 떨어질 수 없는 여신이다. 그뿐만 아니다. 메두사와 아테나는 또 하나 결정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메두사의 가장 두려운 점은 그녀의 눈빛이 모든 생물을 돌로 만들어버릴 만큼 주술적으로 강렬하다는 것이다. 아테나 역시 '초록빛의 푸른 눈(blue-green eyes)'을 가진 여신으로 전쟁에서 분노에 휩싸이면 눈에서 불길을 쏟아낸다. 아테나를 상징하는 새는 부엉이(올빼미)다. 부엉이는 화등잔만 한 눈을 깜빡이지 않고 노려본다. 메두사와 아테나는 핵심적인 요소, 즉 뱀과 눈빛에서 동일하다. 토빈 시버스(Tobin Siebers)는 《메두사의 거울(The Mirror of Medusa)》에서 이 유사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페르세우스가 아테나에게서 빌린 방패를 방어용 병기가 아닌, 메두사의 목을 베기 위한 거울로 사용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아테나와 메두사는 거울의 양쪽에 서 있는 같은 인물이었을까?

고르곤 메두사의 얼굴은 또한 볼 수 없는 죽음을 형상화한 상징물이기도 하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는 메두사가 두렵고 무서운 밤의 경계나 저승의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로 등장한다. 이러한 상징성은 중세를 지나는 동안 단테(Alighieri Dante)의 《신곡》이나 밀턴(John Milton)의 《실낙원》에도 그대로 전승되어 죽음과 저승의 문지기인 메두사가 산 것들은 저승의 길목에 들어설 수 없게 그 사나운 얼굴로 막고 있다.

그리스인들에게 메두사의 마스크는 적에게 막강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적처럼 쓰였다. 입을 찢어질 듯이 벌리고 무시무시한 머리카락을 울울이 곤두세운 채 격렬한 분노에 휩싸인 메두사의 얼굴은 혀를 빼물고 괴이한 함성을 질러대는 전사의 얼굴로 바뀌어 전쟁터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상징물이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영웅의 여정을 마친 후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에게 바쳤고,

아테나는 자신의 불패의 방패에 이 머리를 달아두었다. 아버지 제우스로부터 물려받은 아테나의 방패는 '아이기스'로 불렸는데 메두사의 머리로 인해 더욱 무서운 위용을 더하게 되었다. 방패를 쳐들어 적이 그 방패의 한가운데 달린 메두사를 보는 순간 얼어 돌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석화시켜 돌로 만들어버리는 메두사의 얼굴은 고대 세계 최고의 병기를 상징했으니, 가장 무서운 괴물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가장 훌륭한 자기 방어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주술적 기원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아이기스를 찾게 한다. 그래서 메두사의 머리는 아직도 무적의 군사학교의 상징이나 강력한 무기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자랑하는 구축함으로, 일본이 다수를 보유하여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이지스'는 아이기스의 영어식 표현이다.

메두사는 또한 명품계의 특별한 인물인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의 로고이기도 하다. 베르사체는 어쩌서 메두사의 머리를 자신의 브랜드 로고로 삼았을까? 보기만 하면 그 시선에 사로잡혀 석화되는 그 매력처럼 자신의 작품에 세계인들이 매혹되어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굳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메두사의 머리가 남아 있는 뜬금없는 장소 중 하나가 터키 이스탄불의 지하 궁전이다. 이곳은 아야소피아 사원 바로 옆에 있는데, 비잔틴 제국 1000년간 이 도시의 식수원 역할을 해왔다. 시대가 흐르고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수많은 고대 그리스 신전들과 조각상들은 우상으로 몰려 파괴되었다. 폐허가 된 고대 그리스 신전들의 기둥들은 훌륭한 폐건축자재였다. 여기저기서 실어온 300여 개의 대리석 기둥들이 준비하여 마치 궁전과 같다 해서 지하 궁전이라 불리는 이 저수조 안쪽으로 대리석 기둥 아래 두 개의 메두사 얼굴이 하나는 옆으로 누워 있고 하나는 거꾸로 처박혀 있다.

아마도 메두사의 머리만큼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흔하고 인기 있는 부조도 없었던 모양이다. 그 후의 화가들도 메두사의 머리를 즐겨 그렸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 기이한 화가였던 카라바조(Caravaggio)는 자신의 얼굴을 본뜬 메두사를 그렸다.



카라바조의 메두사

시인은 노래한다.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늘 닮아 있는 법.
속과 겉,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나는 것,
그것은 언젠가 어디선가 만나는 법.
서로 거울 속 자기라서 깜짝 놀라지.

교실의 왕따, 누가 봐도 지질이.

교실의 깡패, 누가 봐도 문제아.

하나는 괴롭히고 하나는 당하지만 둘 다 같은 사람.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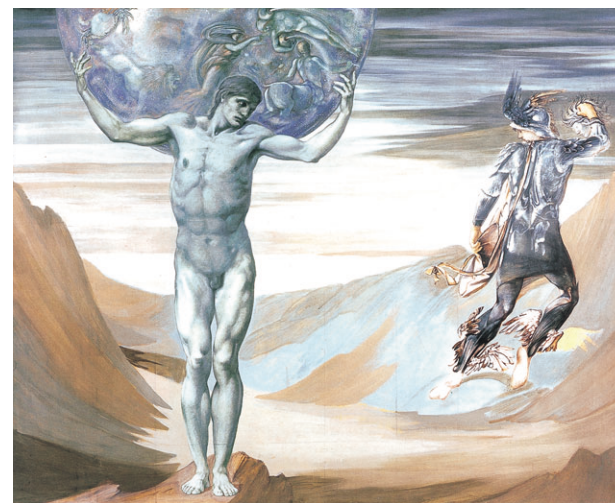
가운데 침묵하는 다수가 "그러지 마" 라고 외쳐야 해결되지.

말 많은 여인 카시오페이아와 영원한 왕녀 안드로메다

고르곤 메두사의 목을 자루에 넣고 하늘을 날아 귀환하던 페르세우스는 밤 새 서쪽으로 날아갔다. 그곳은 서쪽의 끝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태양 수레를 끌었던 천마들이 고삐에서 풀려나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다. 광대한 서쪽 끝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거인 아틀라스Atlas였다. 이 나라의 목장에는 수천 마리의 소와 양들이 있었다. 특히 아틀라스 왕에게는 가지와 잎과 열매가 모두 황금인 황금 사과나무가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임을 밝히고 새벽의 여신이 태양 수레를 끌어내는 아침까지 쉬어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틀라스는 차갑게 거절했다. 왜냐하면 제우스의 아들 하나가 이 황금 사과를 훔쳐갈 것이라는 신탁을 들은 아틀라스가 황금 사과를 지키기 위해 제 땅에 오는 길손은 누구나 그 사과나무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거대한 뱀더러 지키게 했기 때문이다. 수상쩍은 나그네인 데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니 더욱도 독으로 의심되었던 것이다. 차가운 거절과 함께 페르세우스를 쫓아내려고 하자 배알이 뒤틀린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와 신경전을 벌리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지만 이 거인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배낭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보여주었다. 메두사의 눈과 눈이 마주치자 이 엄청난 거인은 서서히 돌로 굳어갔다. 머리는 산의 꼭대기가 되고 팔다리는 산의 절벽이 되고 뼈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신체 각 부위가 점점 굳어져 마침내 거대한 산이 되고 말았다.* 신들은 기뻐했다. 천상을 받치는 거대하고 안전한 받침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거인 아틀라스를 거대한 산맥으로 만들어버린 페르세우스는 계속 날아가 에티오피아를 지나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한 번 더 스스로 영웅임을 드러내는 장쾌한 장면을 만들어 내면서 바다 괴물을 처치하고 아름다운



돌이 되어버린 아틀라스. 에드워드 번 존스

안드로메다Andromeda를 구출하여 결혼하는 러브 스토리가 전개된다. 안드로메다는 에티오피아의 왕인 케페우스Cepheus와 카시오페이아Cassiopeia 사이에

- ◆ 페르세우스가 아틀라스를 산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야기는 후에 나타나는 헤라클레스의 모험 이야기와 서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페르세우스보다 네 세대나 후손인 헤라클레스가 살아 있는 아틀라스를 만나기 때문이다. 신화에는 여러 전승과 다양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부지기수다. 작가에 따라서, 전승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수없이 변형되어 내려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인즉 이렇다. 헤라클레스의 열두 가지 과업 중 하나는 헤라의 정원에서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세상의 서쪽 끝에 있던 이 정원을 물어뜯어 찾아오게 되었다. 황금 사과를 담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신 헤라는 머리가 100개 달린 용에게 지키게 하고, 저녁의 요정인 세 명의 헤스페리데스자매에게 사과나무를 돌보게 했다. 그래서 이 황금 사과를 흔히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라고 불리게 되었다. 헤라클레스가 이 근처에 왔을 때 어찌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인 아틀라스를 만나게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에게 헤라의 정원에서 황금 사과를 따오는 동안 자기가 대신 하늘을 지고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무거운 하늘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아틀라스는 흔쾌히 동의하고 황금 사과를 따왔다. 그는 헤라클레스에게 자신이 직접 이 일을 사킨 에우리스 테우스왕에게 사과를 가져다주고 올 테니 그동안 계속 하늘을 지고 있으라고 했다. 헤라클레스는 동의하는 척하면서 아기에 방석을 깔 동안만 잠시 쉬게 해달라고 청했다. 아틀라스가 의심 없이 하늘을 받쳐 든 사이에 헤라클레스는 땅에 놓아둔 황금 사과를 들고 뱀다 달아나버렸다.



괴물의 제물로 된 안드로메다. 에드워드 번 존스

서 태어난 딸이다. 카시오페이아는 외모에 대단한 관심을 가진 왕비로서 딸인 안드로메다가 바다신의 딸들인 네레이스들을 몽땅 합해놓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랑했다. 화가 난 바다의 님프 네레이스들(복수는 네레이데스)은 포세이돈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괴물을 보내 케페우스 왕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곤경에 처한 왕은 머리에 양의 뿔이 달린 암몬 신*에게 신탁을 구했

다.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다. 딸 안드로메다를 바다의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다. 신탁의 내용을 알게 된 백성들은 왕에게 신탁을 따를 것을 종용했다. 그리하여 어미의 오만으로 빚어진 빛을 딸이 갚아야 할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안드로메다는 바닷가 절벽에 묶여 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하늘을 날던 페르세우스가 본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다. 그는 바닷가 미풍에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부끼는 안드로메다의 비극적인 모습에 매료되었다.

* 에티오피아의 토속신은 휘감긴 뿔을 가진 산양의 모습을 한 암몬 Ammon 신이었다. 그래서 케페우스는 암몬 신에게 신탁을 받았던 것이다. 암몬 신은 제우스와 동일시되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거대한 괴물 티폰과 싸울 때 이 괴물이 너무도 크고 용맹하여 올림포스의 신들이 모두 동물로 변신하고 이집트로 도주했던 적이 있었다. 이때 제우스는 휘감긴 뿔을 가진 산양으로 변하여 도망갔다가 다시 티폰과 맞서게 되었다. 제우스가 변신했던 산양이 바로 암몬 신이다. 이 이야기는 에티오피아가 그리스의 정복지가 되면서 토속신인 암몬이 제우스와 동일한 신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중에서 처녀에게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금빛 사슬에 묶여 있어야 하는 그대에게 이런 쇠사슬은 당치 않습니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어찌하여 사슬에 묶이게 되었는지 내게 연유를 알려 주시지요.”

안드로메다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바닷가 절벽 사슬에 묶여 있는 처지에 씩씩한 청년을 만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저 커다란 눈 가득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페르세우스가 몇 번을 묻자 처녀는 자신의 이름과 이렇게 된 까닭을 겨우 털어놓았다. 안드로메다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바닷물이 요란스럽게 갈라지면서 바다 괴물 케토가 마치 힘 좋은 뱃사공들이 젓는 배처럼 손살같이 물살을 가르면서 처녀에게 돌진해오는 것이 보였다. 두려움에 질려 처녀도 울고, 처녀의 부모도 부둥켜안고 울었다. 페르세우스는 왕에게 말했다.

“눈물을 거두십시오. 눈물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괴물과 싸워야할 때입니다.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며, 신들의 도움으로 메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다시 신들이 허락한다면 괴물을 죽여 따님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나의 용맹이 따님을 구출한다면 따님과과의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왕과 왕비는 얼른 승낙했다. 그것은 한 줄기 구원의 빛처럼 보였다. 페르세우스는 날개가 달린 신발을 신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바다로 급강하하면서 메두사를 단칼에 죽인 휘어진 칼을 수없이 휘둘러 괴물의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만들어 죽여버렸다. 바닷가에 서서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함성이 하늘에까지 메아리쳤다.

싸움에 이긴 페르세우스는 제단을 쌓고 자신을 도와준 신들에게 제사를



페르세우스, 괴물과 싸워 이기다. 에드워드 번 존슨

올렸다. 왼쪽에는 헤르메스를 위한 제단, 오른쪽에는 아테나, 그리고 중앙에는 제우스를 위한 제단이 만들어졌다. 그는 아테나에게는 암소를, 헤르메스에게는 송아지를, 제우스에게는 늪짐승 한 마리를 바쳤다. 그리고 안드로메다를 맞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괴물을 물리친 통쾌한 일이 벌어지고 그 영웅이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 두 번

겹쳐 바닷가 도시는 기쁨으로 출렁거리는 듯했다. 오비디우스Publius Naso Ovidius는 《변신 이야기》속에서 이 결혼식을 이렇게 묘사했다.

사랑과 혼인의 여신이 신랑과 신부 앞에서 햇불을 흔들었다. 향이 이낌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 피어오르고, 지붕에서 바닥까지 온통 꽃다발이었다. 도처에서 수금소리, 피리소리, 노랫소리가 울려 퍼져 하객들의 기분은 날아갈 듯했다. 성문은 활짝 열어젖혀졌고 황금의 궁전 문들도 남김없이 열렸다. 에티오피아의 귀족들은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왕실이 준비한 호화로운 파티에 참석했다. 그리고 하객들은 마음껏 저바쿠스의 은헤인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결혼식은 이내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안드로메다에게는 페르세우스 이전에 약혼자가 있었는데 바로 왕의 아우인 피네우스Phineus였다. 피네우스는 약혼녀가 엉뚱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자 음모를 꾸며 패거리를 모아 난동을 부리게 되었다.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속에서 이 난동에 대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지루하리만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피네우스가 패거리를 데리고 와서 약혼자를 훔쳐간 떠돌이를 처단하러 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페르세우스에게 창을 던지려 하자 형인 케페우스 왕이 나서서 꾸짖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지는 것이냐? 안드로메다를 앓아간 것은 바다에서 솟아 나내 살을 말리고 내 피를 말리던 저 바다의 괴물이지 페르세우스가 아니다. 안드로메다가 너를 떠간 것은 죽음을 앞둔 바로 그때였다. 그 아이의 삼촌이자 약혼자인 너는 그 아이가 사슬에 묶여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 떨거니 서서 바라본 것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그리고 메두사

밖에 한 것이 더 있느냐? 그 아이를 위한다면 그 아이의 목숨이 명재경각이었던 그 순간에 그 절벽에서 구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나서서 그 아이의 약혼자라고 주장했어야 했다. 신들이 내 딸에게 괴물의 제물이 되는 기구한 운명을 선언했을 때 인간의 약속은 취소되었다. 죽음에 의해 모든 약속이 취소되듯이 말이다. 아무도 무서워 나서지 않았을 때 페르세우스가 나섰다. 그 사람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목

숨이 살아났다. 그래서 남편으로 선택된 것이다. 물러가라. 창피하지 않느냐?”

피네우스는 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분노와 부끄러움이 솟아오르자 있는 힘을 다해 페르세우스를 향해 창을 던졌다.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케페우스 왕의 궁전 대청에서 벌어진 페르세우스와 피네우스 패거리들의 싸움에서 페르세우스는 죽여도 죽여도 물러드는 반군들에게 마침내 메두사의 머리를 치켜들고 고함을 질렀다. “내 편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내 적들은 모두 여기를 보라.” 그러자 메두사의 눈을 본 사람들은 모두 돌로 변하기 시작했다. 창을 던지려던 자가 그대로 굳어 석상이 되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던 자가 그대로 멈춰 섰다. 어떤 자는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 그대로 돌로 굳어졌다.

싸우기 전에는 페르세우스에게 가장 위협했던 메두사의 머리가, 일단 페르세우스가 승리하여 그의 전리품이 되자 적들을 물리치는 결정적이고 강력한 무기로 전환되었다. 그녀의 머리는 페르세우스의 영광이 되었다. 위험이 명예가 되고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된 것이다.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에는 메두사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의 청동상이 있는데, 첼리니 Benvenuto Cellini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메두사가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고 몸도 여인의 나신으로 페르세우스 발밑에 죽어 누워 있다. 신기한 것은 페르세우스의 얼굴이 메두사의 얼굴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것이다.

시인은 노래한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곳, 그곳은 사랑.

씩씩한 청년과 눈이 맑은 여인은

서로 찾아 그리워하는 예쁜 짝.

그러나 용감한 자만이 사랑을 얻는 법.

오직 사랑만이 목숨을 걸 만한 것.

무엇을 가지지 못하면 불편하고

사람을 얻지 못하면 삶 자체가 허무.

세상의 보물 딱 하나만 들라면 단연코 사랑이지.

목숨을 건 것이 목숨을 살리는 법.

그걸 잡으려면 온 삶을 다 걸어야지.

그러나 신탁은 이루어지고 영웅은 별이 되다

비록 난장판이 되긴 했으나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와 결혼하여 그녀를 데리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세리포스 섬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리비아의 사막 지대를 지나게 되었는데, 메두사의 목에서 스며 나온 피가 방울방울 사막에 떨어져 모래 독사를 만들어냈다. 사막의 독사들은 메두사의 후예들인 썸이다. 페르세우스는 드디어 그리던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살았던 디티스의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얻기 위해 모험을 떠난 다음 폴리덱테스 왕은 다나에에게 청혼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화가 난 왕이 그녀를 강제로 차지하려 하자 디티스는 다나에를 데리고 왕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불가침의 신전으로 피신해서 살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먼저 왕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왕과 그의 심복들이 모여 궁전에서 연회를 열고 있을 때 페르세우스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왼손에는 아테나의 빛나는 둥근 방패를 들어 가슴을 보호하고, 오른손에는 은으로 된 자루를 들고 페르세우스가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페르세우스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머리를 돌리기 전에 얼른 메두사의 머리를 쳐들며 외쳤다. 그러자 왕을 비롯한 신하들은 각양각색의 포즈와 표정으로 돌로 굳어져갔다. 어머니 다나에와 디티스를 찾아낸 페르세우스는 디티스를 왕으로 추대했다.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환영했다.

페르세우스의 모험은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신탁 때문에 할아버지 손에 죽을 뻔한 기구한 운명으로 시작한 그의 삶은 신들의 도움으로 영웅의 삶으로 반전되었다. 이제 그는 아내와 어머니 다나에와 함께 비극이 시작되었던 할아버지의 나라이자 고향

인 아르고스를 향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는 이미 아르고스를 떠나 라리사라는 나라에 가 있었다. 마침 그 나라 왕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아버지를 기리는 운동경기가 열리게 되었는데, 페르세우스도 선수로 참가하게 되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페르세우스는 힘껏 원반을 던졌다. 그러나 실수하여 원반이 관중석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마침 그 경기에 참석하고 있던 아크리시오스를 맞춰 그 자리에서 죽게 하고 말았다. 그의 신원을 알게 된 페르세우스는 슬퍼하면서 성대히 장사를 지내 라리사의 성 밖에 묻어주었다. 세월이 흘렀으나 신탁은 이루어졌다. 전승에 의하면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에 돌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대신 티린스의 왕이었던 사촌과 서로 나라를 맞바꾸어 다스렸다고 한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에 의해 청동의 방에 갇히고, 결국 자신이 할아



운명의 굴레. 에드워드 번존스

버지를 죽이게 된 비극의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어찌 되었든 그 사촌이 아르고스를 다스리고 페르세우스는 티린스의 왕이 되었다. 티린스는 미케네 문명의 중심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다.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미케네에서 아르고스로 가는 길에 페르세우스를 기리는 신전이 있어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실존 인물로 추앙하고 있었다고 한다. 종종 페르세우스를 미케네 문명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원전 1400년경에 미케네의 성벽을 쌓은 것이 바로 페르세우스라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거대한 성벽이 남아 있고 성벽의 한쪽 구석에는 유명한 사자의 문Lion Gate이 있다. 바로 이 사자의 문 근처 좁은 구역에서 고고학자 하인리히 쉘리만Heinrich Schliemann은 왕족들의 인골과 수많은 유물을 발견했다. 황금 가면 쓴 남자 해골이 있었고, 황금 왕관을 쓴 뼈만 남은 여인들이 발견되었다. 쉘리만은 이곳을 미케네 아트레우스Atreus 왕의 보물 창고라고 불렀다. 아트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

* 기원전 1400년경이면 미케네 문명이 크레타 문명을 압도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다. 대략 이때쯤이면 그리스 본토의 영웅들이 신화의 페이지들을 장식하게 된다. 영웅들의 이야기는 그 속에 역사적인 배경과 추이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미케네의 페르세우스가 일어나 영웅의 모험을 시작하고 그 직계 후손인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이 이어진다. 이내 아테네의 테세우스가 등장하면서 크레타의 황소 괴물 미노타우로스Minotaurus를 죽이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 본토의 신생 도시국가들이 급격히 몰락하는 크레타 문명을 대신하면서 권력의 구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반영한다. 전성기를 누리던 크레타의 미노스 문명은 급격히 몰락하게 되고 그리스 본토 남서쪽에 위치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아르고스, 티린스, 미케네 등의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미케네 문명이 흥기하기 시작한다. 미노스 문명은 미케네 문명보다 앞서지만, 그것은 늙어 사라지는 별이며, 미케네는 떠오르는 샛별이었다. 미케네 문명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페르세우스의 모험은 성장의 정점에서 몰락하는 미노스 왕 이야기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신화다. 내가 페르세우스의 모험을 가장 앞에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로 크레타 문명은 대략 기원전 2500년-기원전 1400년,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600년-기원전 1150년 사이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문명이 흥망을 교환하는 교체기인 기원전 1600년-기원전 1400년 사이 200년이 주로 초기 영웅들의 활동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원전 1200년경에 트로이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화는 역사가가 아니라 상상이기 때문에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적 상상력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Agamemnon의 아버지다.**

한편 페르세우스는 모든 모험을 마치고 아름다운 안드로메다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다가 별이 되었다. 무수한 영웅들이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페르세우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무더기로 별자리 하나씩을 차지한 경우는 많지 않다. 페르세우스 신화가 그리스 영웅 신화의 태두여서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의 관대함으로 하늘의 별들을 이 신화에 듬뿍 담아 두었다.

당연히 페르세우스도 죽어 별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를 상상했다. 메두사는 페르세우스를 벗어날 수 없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둘은 마치 하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점성술사들은 메두사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 별자리 중에서 메두사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알골Algol 별을 우주에서 가장 불길한 별이라고 믿어왔다. 이 별은 이등성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베타 페르세이Beta Persei라고 부른다.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beta는 두 번째라는 뜻이다. 이 알골 별은 매우 특이하다. 이틀하고 반나절이 지날 때마다 이 별은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난다.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그 이유를 밝혀냈다. 이 알골 별은 위성을 가지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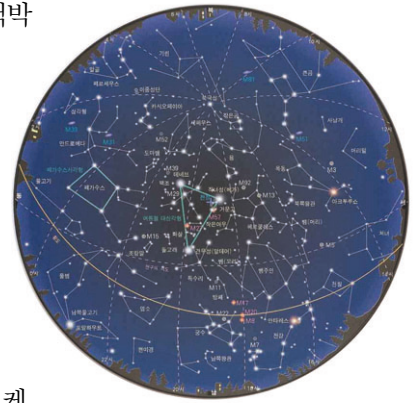
**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사이에서 일곱 아들과 두 딸이 태어났다. 이들로 이어지는 계보로 페르세이데스Perseides, 즉 페르세우스의 후손들이라고 부른다. 미케네의 왕위는 페르세우스로부터 이룬인 엘렉트라Electra 그리고 그 아들인 에우리스테우스 그리고 아트레우스로 이어지게 되고, 이윽고 트로이 전쟁의 그리스 사령관인 아가멤논으로 이어진다. 기원전 5세기 전후에 소크라테스Socrates와 동시대인으로 활약한 아테네의 변론가 이소크라테스Isocrates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페르세우스의 일곱 아들 중 하나인 알카이오스Alcaeus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계로 페르세우스의 4대손에 해당한다고 한다. 페르세우스는 에티오피아에서 지내다가 페르시아의 시조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데 이 위성이 공전을 하다가 알골 별을 가리면 일종의 일식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별들을 식변광성(蝕變光星)이라고 부른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 별을 보면서 메두사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 기이한 알골 별을 메두사의 머리라고 부른 것은 기막힌 우연이었을 것이다. 점성술사들은 이 메두사의 머리별을 '악마의 별demon star'이라고 불렀다.

페르세우스 별자리 바로 옆에 안드로메다의 별자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카시오페이아자리와 케페우스의 별자리도 보인다. 카시오페이아 별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W자로 반짝이는 별 다섯 개는 유난히 밝아 북두칠성과 더불어 누구나 쉽게 찾아내는 별자리지만 남편인 케페우스의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모두 빛이 흐리다. 신화 속에서 활달하고 말 많고 고집 센 이 여인은 별자리에서도 빛나지만, 좀 멍청하고 공처가이며 우유부단한 왕은 죽어서도 투미하다. 좀 안돼 보인다. 하지만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에게도 행운이 찾아오듯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희미했던 케페우스 왕의 명성을 드높일 발견이 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100여 권의 흥미로운 책을 쓰기도 한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에 따르면 천문학자들은 케페우스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 중에서 오른쪽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네 번째 델타 별Delta Cephei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면서 변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한다. 알골 별이 잠시 동안 빛이 아주 사라져버리는 것과는 달리 이 별은 빛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별을 변광성(變光星)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천문학자들은 이 별처럼 심장이 뛰듯이 맥박치는 별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맥박 치는 변광성들을 모두 케페이드Cepheid라고 부르게 되었다. 처음 발견한 것을 기념하여 변광성 모두에 케페우스 왕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아내의 안색에 따라 인생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변광성 같은 어린 남자들은 모두 케페우스의 후손들이다.



케투스의 별자리

그리스인들은 안드로메다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바다 괴물도 선심을 써서 하늘의 별자리로 올려두었다. 이 자리는 '고래자리Cetus'라고 불린다.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소설 《백경Moby Dick》은 이 바다 괴물을 잡은 페르세우스가 인류 최초의 포경인whaleman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마도 이 바다 괴물의 거대한 몸집이 고래를 닮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가 하면 메두사의 환생이기도 한 날개 달린 천마 페가소스 역시 별자리로 하늘을 달리게 되었다. 안드로메다의 별자리 바로 옆에 페가소스의 별자리가 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 세 개와 안드로메다의 가장 밝은 별 한 개가 합쳐져서 '페가소스의 사각형Square of Pegasus'을 형성하고 있다. 거칠고 야망이 큰 고대의 영웅들은 안드로메다와 같이 이름답고 조신한 아내를 얻는 것과 더불어 페가소스 같은 씩씩한 야생의 말을 타보는 것이 평생의 로망이었다. '페가소스의 사각형'은 바로 그런 고대 남자들의 로망을 결합시켜둔 별자리가 아니었을까? 페가소스만은 못하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명마였던 부케팔로스 역시 거친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타보고 싶어 하는 말의 대명사였다.

수많은 그리스 영웅들의 행적 속에서 페르세우스처럼 한 여인과 로맨스를 만들어 오직 그 한 사람과 일생을 살아간 영웅은 매우 드물다. 토로이의 용장이며 세기의 혼남인 헥토르Hektor만이 그에 비견될 수 있다. 테세우스는 타고난 바람둥이였고, 이아손Iason은 사랑의 배신자였고, 헤라클레스는 만나는 여인마다 아이를 갖게 했고, 아킬레우스Achilleus는 이 여자 저 여자를 탐닉했고, 오디세우스는 달려드는 여인들을 피하지 않았다.

시인은 노래한다.

나도 너도 모두 우주의 별이 환생한 것,

삶이 끝나는 날 다시 별 되어 돌아가지.

무수한 별 무수한 운명.

어두운 밤 속에서 더듬어 찾듯 서로 만나꽃다운 인연,

손잡아 별자리 되고 무리지어 은하수되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고

슬픔이 클수록 사랑도 깊어가네.

우리 모두 맥박 치는 별 변광성,

나 너에 대한 열망으로 밝아지고

나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숨어버리네.

제우스

• Zeus •

제우스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빛과 창공의 신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제우스가 우주의 질서를 의인화한 신이라고 말한다. 제우스는 크로노스와 레아Rhea의 여섯 번째 막내아들이다. 크로노스는 자식 중 하나가 왕위를 찬탈할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레아가 낳은 아이들을 모두 삼켜버렸다. 여섯 번째 아이만이라도 살리고 싶었던 레아는 강보에 돌을 싸서 크로노스에게 주었다. 크로노스는 그것이 아이인 줄 알고 삼켜버렸다. 제우스는 그렇게 살아났다. 제우스는 크레타 섬에서 태어나서 암염소 아말테이아Amaltheia의 젖을 먹고 자랐다. 암염소가 죽자 그 가족으로 아이기스Aegis라는 방패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아테나Athena에게 주었다.

제우스의 권력 쟁취 과정은 크로노스와 티탄Titan의 연합 세력과의 싸움에서 시작했다. 제우스는 먼저 크로노스가 지하 감옥인 타르타로스Tartaros에 가두어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Cyclops와 팔이 100개인 거인 헤기톤케이레스를 풀어주어 자신의 세력으로 규합했다. 키클롭스는 제우스에게는 천둥과 벼락을 무기로 주고, 하데스Hades에게는 머리에 쓰면 모습이 사라지는 투구를 주고, 포세이돈Poseidon에게는 땅과 바다를 뒤흔들 수 있는 삼지창을 만들어주었



제우스

다.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신들의 으뜸인 올림포스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권위는 곧 다시 도전받게 되었다. 할머니인 대지의 여신 가이이^{Gaia}는 아들 크로노스가 싸움에 져서 타르타로스에 갇히자 화가 났다. 그래서 기간테스^{Gigantes}들을 동원하여 제우스의 형제들에게 맞서게 했다. 그중 티폰^{Typhon}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어 한때 제우스가 사로잡히기도 했으나 결국 에트나 화산을 던져 티폰을 죽이고 승리했다.



지혜의 여신 메티스

제우스에게는 세 명의 아내가 있다.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는 지혜의 여신 메티스^{Metis}다. 그녀는 크로노스에게 약을 먹여 삼킨 자식들을 모두 토해내게 해서 제우스가 그들과 힘을 합쳐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 주었다. 제우스의 할머니 가이이는 메티스가 첫 딸을 낳고 그다음에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들이 제우스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우스는 가이이의 충고에 따라 메티스를 삼켜버렸다. 메티스가 스스로 자신을 삼키라고 권유했다는 설도 있다. 그렇게 해서 아테나가 태어났다.

두 번째 아내는 법과 정의의 여신 테미스^{Themis}다. 그녀는 거인족과 싸울 때 제우스에게 암염소 아말테이아의 가죽인 아이기스를 갑옷으로 삼으라고 조언했고 신탁, 제의, 법 등을 만들어 제우스를 보필했다. 트로이 전쟁을 구상한 것도 테미스라는 설이 있다.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리스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Aeschylus}에 따르면 인간



법과 정의의 여신 테미스

을 만든 프로메테우스의 어머니라고 한다. 아폴론^{Apollon}에게 신탁을 내리는 비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세 번째 아내가 바로 여인들과 가정의 수호신 헤라^{Hera}다.



가정의 여신 헤라

그리스인들이 만든 최고의 신 제우스는 끊임없이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고 아내에게 자신의 부정을 파렴치한 거짓말로 무마하는 신으로 묘사된다. 최고의 위엄을 갖춘 신이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학자들은 제우스의 바람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어떤 지배신이 이미 있는 도시에 그리스인들이 들어가 영향력이 커지면 제우스 숭배도 함께 퍼지게 되면서 원래의 토속신과 하나로 융화하게 된다. 그러면 그 토속신의 아내 역시 제우스에게 양도된다. 이 과정이 바로 제우스의 끝없는 외도 행각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영웅들은 자신들의 계보를 신에게 닿게 하고 싶었다. 이왕이면 다른 신들보다도 제우스의 아들이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웠다. 그렇게 반신반인^{***} 사이라는 특별한 혈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는 헤라의 눈을 피해 짐승이나 자연의 사물로 변신하여 사랑을 얻는 방법을 가장 많이 썼다. 이주 대표적인 인간 여인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몇 개 예로 들어보자. 우선 황금 비로 합쳐진 다나에^{Danae}와의 사이에서 페르세우스^{Perseus}를 낳았다. 알크메네^{Alcmene}의 남편으로 변신하여 그녀와의 사이에서 헤라클레스를 낳았다. 황소가 되어 합쳐진 에우로페^{Europe}와의 사이에서는 크레타의 미노스^{Minos}를 낳았다. 백조가 되어 합쳐진 레다^{Leda}와의 사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Helene}가 태어났다.

제우스에 대한 한 가지 궁금증을 더 풀어보자. 그는 왜 하필 비와 천둥과 벼락

의 신이 되었을까? 자연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태양이다. 이집트 신화를 비롯한 여러 신화에서 태양신은 가장 위대한 신이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태양의 신이 아니라 비와 천둥과 번개의 신이 태양을 누르고 최고신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의 자연은 돌과 바위투성이의 척박한 땅이 대부분이다. 물이 귀하니 늘 비를 바라게 되었다. 태양의 신보다 비의 신이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최고신은 우신(雨神)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든 일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이유와 사연들이 있다.

그리스 신화 속의 기괴한 괴물들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난 기괴하고 흉악한 자식들 중에서 가장 이름난 괴물은 셋이다. 먼저 이들 괴수의 아버티폰은 인간과 야수의 중간적 존재로서 대지의 어떤 것보다도 컸다. 크로노스가 제거되고 티탄들이 싸움에서 져서 불행해지자 거인들의 모신(母神) 가이아는 제우스의 처사가 불만스러웠다. 일설에 의하면 헤라를 불러서 머리 수정된 알을 땅에 묻게 하여 거대한 마신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티폰이었다고 한다. 그는 어떤 산보다 더 컸기 때문에 머리가 가끔 별과 부딪히기도 했다. 팔을 벌리면 한 손은 동방에 그리고 또 한 손은 서방에 닿았다. 손에는 손가락 대신 100마리의 용의 얼굴이 달려 있었다. 허리 아래는 꼬들대는 독사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눈에서는 섬광이 일어났다.

이 괴수가 올림포스를 공격하자 놀란 신들은 동물로 변신하여 이집트와 사막으로 쫓겨 갔다. 아폴론은 술개, 아레스^{Ares}는 물고기, 디오니소스^{Dionysos}는 염소, 헤르메스는 부엉이, 헤파이스토스^{Hephaistos}는 황소 등으로 변해 달아났으니 신들의 망신이었다. 제우스 역시 산양으로 변해 도주했다가 다시 티폰과 맞붙게 되었다. 제우스는 번개로 내리치고 강철의 낫으로 공격했으나 끝내는 티폰에게 패배하고 팔다리 힘줄이 잘려 동굴에 처박혔다. 티폰은 제우스의 근육과 힘줄을 곰기죽에 싸서 암용 델피네^{Delphyne}에게 지키게 했다. 헤르메스가 힘줄을 훔쳐 다시 제우스의 몸에 붙여주었다.

두 번째 티폰과의 싸움에서 제우스는 벼락을 때려 그를 패퇴시켰다. 제우스는 시칠리아 바다로 도주하는 티폰에게 에트나 화산을 던져 그 밑에 괴물을 깔

아 죽었다. 아직도 에트나 화산에서 나오는 불길은 티폰이 쏟아내는 것이라고도 하고 제우스가 던진 벼락의 잔재라고도 한다. 이런 티폰의 자식들이니 하나하나 그 괴력이 만만치 않다. 웬만한 영웅들은 이 괴물들을 당해내지 못한다. 그리스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잠시 미쳐서 자식을 죽인 죄에 대한 속죄로 열간이 사촌 에우리스테우스^{Eurysteus} 왕의 명령에 따라 열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괴물들은 주로 제압되거나 죽임을 당한다.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지옥의 개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Kerberos}는 죽음의 세계를 지키는 저승의 신 하데스의 개다. 이 개가 하는 일은 죽은 자들이 저승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또 산 자가 저승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이다. 머리가 세 개이고, 꼬리는 뱀으로 끝에 전갈과 같은 독침을 달고 있으며, 등줄기를 타고 수많은 뱀의 머리들이 솟아나 있다. 헤라클레스에게 주어진 열두 가지 과업 중에서 열한 번째 과업이 이 개를 지상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가 찾아오자 하데스는 무기를 쓰지 않고 케르베로스를 제압할 수 있다면 지상으로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헤라클레스는 완력으로 이 개의 목을 졸라 거의 질식사시켜 지상으로 끌고 갔다. 이 일을 시킨 에우리스테우스는 이 개를 보자 기겁을 하고 은신처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개를 하계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개는 다시 저승을 지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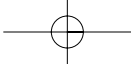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뱀 히드라

헤라가 키워서 헤라클레스를 시험하기 위해 써먹은 괴물이다. '뿔'이라는 뜻을 가진 히드라^{Hydra}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으로 묘사되는데, 머리의 수는 다섯 개, 여섯 개 혹은 100개로 작가에 따라 다르다. 아홉 개라는 설이 통설 같다. 입

으로 내뿜는 독기가 강해서 괴물이 자고 있을 때조차 그 곁에 가면 독에 중독되어 죽게 된다. 더욱이 목을 치면 그 자리에서 두 개의 머리가 솟아나기 때문에 신조차 꺼려하는 대상이었다. 헤라클레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업이 바로 이 뱀을 죽이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먼저 인근 숲에 불을 질러 나무로 된 불등걸을 만들었다. 조카인 이올라오스^{Iolaus}는 이 불등걸을 들고 있다가 헤라클레스가 날이 흰 검은 히드라의 목을 치면 열린 그 자리를 지져 다시 두 개의 머리가 솟아나는 것을 막았다. 가운데 머리는 불사의 머리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그 머리를 잘라 땅에 묻은 다음 커다란 바위로 눌러두었다. 헤라클레스는 화살에 히드라의 독을 묻혀 보관해두었다. 오랜 뒤에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아내 데이아네이라^{Deianeira}를 겁탈하려는 반인반마 네소스^{Nessus}를 이 독화살로 쏘아 죽였다. 네소스는 죽으면서 데이아네이라에게 자신의 피가 묻어 있는 셔츠를 보관해두었다가 헤라클레스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입히면 자신의 피가 사랑의 묘약이 되어 남편의 사랑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속였다.

훗날 헤라클레스에게 다른 여인이 생기자 데이아네이라는 이 옷을 남편에게 입혔는데, 네소스의 피 속에 남아 있던 히드라의 독이 살로 파고들어 헤라클레스는 결국 죽게 되었다. 네소스와 히드라는 죽어서 결국 자기를 죽인 헤라클레스에게 보복한 셈이다. 히드라의 자취가 남아 있는 영어 관용구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악화되는 문제나 조건'을 'hydra-headed'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또 '네소스의 셔츠^{a Shirt of Nessus}'라는 관용구가 한 사람의 명예나 미래를 파멸시키는 '치명적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유 또한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통, 뱀의 꼬리를 가진 키마이라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키마이라^{Chimera}의 모습을 “인간이 아닌 괴수로 사자의 머리와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몸통은 염소인데, 입으로 격렬한 불길을 뿜어낸다” 라고 묘사한다. 다른 전승들에 의하면 여



키마이라

탈을 일삼는 키마이라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벨레로폰은 메두사의 환생인 날개 달린 천마 페가소스^{Pegasus}의 등에 올라타고 하늘에서 활을 쏘아 키마이라를 제압했다. 그런 다음 그는 창끝에 납 조각을 붙여놓고 키마이라가 불을 뿜어 그 열기에 납이 녹아내리게 한 다음 녹은 납으로 키마이라의 생명을 거두었다.

키마이라 혹은 키메라는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형질을 가진 동종의 조직이 함께 공존하는 현상’을 뜻하는 생물학 용어로 쓰인다. 이 명칭은 하이브리드 괴수인 키마이라의 신화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검은 쥐와 흰 쥐의 키메라로부터 양과 염소가 결합된 키메라 그리고 최근 여섯 개의 게놈이 섞인 키메라 원숭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인위적인 합성이 아니라도 아주 드물게 자연적인 인간 키메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기 아이가 분명한테 유전

러 개의 머리가 달려 있는데, 하나는 염소의 머리, 또 하나는 사자의 머리, 또 하나는 뱀의 머리라는 설도 있는 하이브리드 괴수다. 소아시아 남쪽 지역에 있던 리키아의 왕 이오바테스^{Iobates}는 영웅 벨레로폰^{Bellerophon}에게 자신의 영토에 나타나 약

자 검사를 해보면 유전적으로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의 몸속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가 공존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간세포의 DNA와 피부세포의 DNA가 다른 것이다.

키메라^{Kimera}라는 한국인 가수가 있다. 1980년대 중반에 <더 로스트 오페라^{The Lost Opera}>라는 앨범을 냈으며, 주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활동했다. 그녀는 ‘팝페라^{popera}’라는 장르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한때 매우 참신하여 인기가 있었으나 딸의 납치 사건 이후 활동을 접었다. 얼굴에 흰색으로 분장을 하고 노래하던 이 여인의 모습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예명인 키메라는 자신의 성^{Kim}과 Opera를 합성한 것이며, 팝과 오페라를 합성한 하이브리드 장르로 새로운 틈새를 개척했으니 키마이라적 발상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테베의 괴물 스피нк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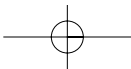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오후에는 두 발로 걸으며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은 무엇인가?”

이 수수께끼는 이제 누구나 그 답을 아는 썰렁한 질문이 되었다. 이 수수께끼는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수수께끼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께끼도 아니다. 그러나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지 못해 죽음을 당했다. 누가 낸 수수께끼이며, 누가 최초로 풀어난 수수께끼일까?

헤라는 이집트의 괴물인 스피нк스^{Sphinx}를 테베로 보냈다. 스피нк스는 여자의 얼굴에 사자의 가슴과 꼬리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암컷 괴물이다. 스피нк스는 테베 시로 통하는 입구에 자리 잡고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맞지 못하면 잡아먹어버리곤 했다. 오이디푸스^{Oedipus}만이 이 수수께끼



스핑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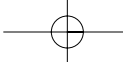
를 풀 수 있었다. 수수께끼가 풀리자 낙심한 이 괴물은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고 말았다.

다른 전승에는 두 번째 수수께끼가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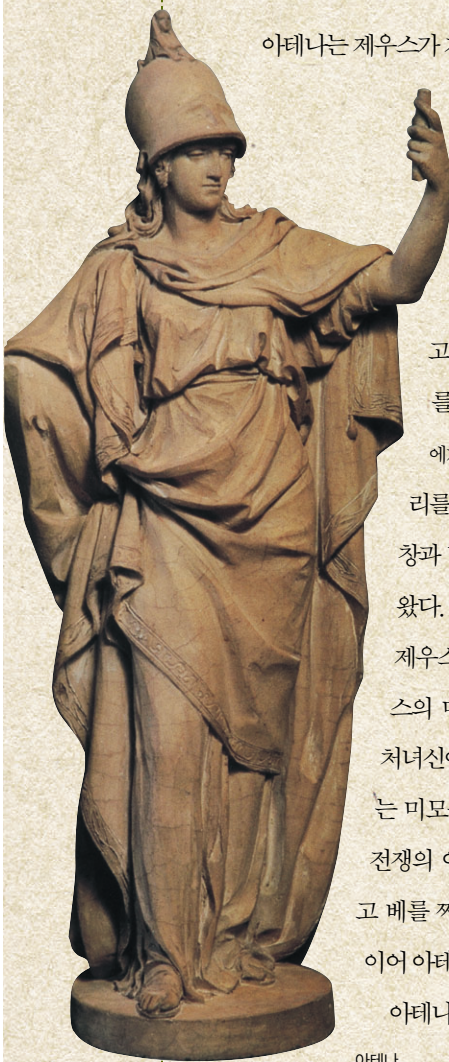
“두 자매가 있었다. 첫 번째 여인이 두 번째 여인을 낳았고, 그렇게 태어난 두 번째 여인이 다시 첫 번째 여인을 낳았다. 이 자매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걸 어렵다. 오이디푸스는 이 두 번째 수수께끼도 풀어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당신에게 기회가 왔다. 답이 뭘까? 답은 이 책의 ‘오이디푸스’ 편에 숨겨두었다.

도검불침(刀劍不侵)의 가죽을 가진 네메아의 사자

헤라가 키온 사자인데 어떤 무기로도 상처를 입힐 수 없었다. 헤라는 이 사자를 네메아로 보내 그 주민과 가죽을 잡아먹게 했다. 헤라클레스에게 맡겨진 열두 가지 과업 중에서 첫 번째 임무는 이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다. 화살이 가죽을 뚫지 못하자 헤라클레스는 몽둥이로 이 사자를 동굴로 몰아넣은 다음 목을 졸라 죽였다. 칼이 들어가지 않아 사자의 가죽을 벗길 수 없자 헤라클레스는 잠시 고민했다. 결국 사자의 발톱으로 가죽을 찢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 자신의 겹옷으로 둘러쓰고 다녔다. 훌륭한 갑옷 하나가 생긴 셈이다.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테세우스가 아직 어릴 때 헤라클레스가 사자 가죽 옷을 입고 나타나자 사람들은 무서워 달아났으나 소년 테세우스만은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헤라클레스는 테세우스의 용기에 반하게 되고, 테세우스는 언제나 헤라클레스를 자신의 모델로 가슴에 담아 두었다.



아테나
• Athene •



아테나는 제우스가 자가생식으로 낳은 딸이다. 그래서 특히 제우스의 신뢰를 많이 받는 여신이다. 아테나의 어머니는 신과 인간 중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은 지혜로운 메티스다. 그러나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자가생식하여 자란 것이니 메티스가 배 아파 낳은 딸이 아니다. 어느 날 제우스는 심한 두통으로 찢찢매고 있었다. 참다못한 그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도끼로 머리를 내려치라고 말했다(프로메테우스에게 시켰다는 설도 있다).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로 힘껏 머리를 내려치자 머리가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로 완전 무장한 아테나가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왔다. 그 소리가 하도 커서 하늘과 땅이 뒤흔들릴 만했다. 제우스의 두통은 깨끗이 사라졌다. 아테나는 이렇게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태어났다. 결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처녀신이지만 아프로디테나 헤라와 견주어 뒤떨어지지 않는 미모를 가지고 있다. 창과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그녀는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평화 시에는 여인들에게 실을 짓고 베를 짜고 수를 놓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으니, 어머니를 이어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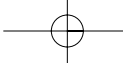
아테나와 헤파이스토스의 관계는 특별하다 할 수 있다. 사

아테나

실이 둘 사이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맞은 추남 헤파이스토스는 아내에게 늘 상처를 받았지만 그 역시 마음속에 연정을 품은 여신이 있었다. 바로 아테나였다. 어느 날 아테나가 헤파이스토스에게 무기를 주문하기 위해 그의 대장간을 방문했다. 평소에 아테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는 그날따라 그 욕망을 참지 못하고 풀무가 시뻘겋게 달구어놓은 화덕에서 타고르는 불을 구경하고 있던 아테나를 덮쳤다. 깜짝 놀란 아테나가 몸을 빼는 순간 너무도 급한 그는 그녀의 넓적다리에 사정을 하고 말았다. 아테나가 황급히 올리브 잎으로 닦아냈으나 그중 한 방울이 땅에 떨어져 엉뚱하게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인간의 몸에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 억울하게 남의 아이를 낳아버리게 되자 분노한 대지의 여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양육을 거부했다. 할 수 없이 아테나가 데려다 키우게 되었다. 아테나는 이 아이에게 에릭토니오스(Erichthonios)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이 아들을 다른 신들 모르게 길러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싶었다. 아테나는 이 아이를 케에 넣고 뱀 한 마리도 함께 넣어 아이를 보호하게 했다. 그리고 이 케를 아테네 왕가를 건국한 케크롭스의 딸들에게 맡겼다. 케크롭스 역시 받은 인간이고 받은 뱀이었다. 케크롭스로부터 몇 대째의 왕이 이어진 후 에릭토니오스는 아테네의 왕이 되었다. 뱀을 신성시한 아테네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부엉이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상징하는 신조(神鳥)다. 아테나는 로마 신화 속의 미네르바(Minerva)다. 부엉이 역시 지혜를 상징한다. 부엉이는 원래 레스보스 섬의 왕 에포페우스(Epopeus)의 딸인 다티메네(Nyctimene)였다. 아버지와 통정하고 근친상간의 수치심 때문에 숲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아테나가 그녀를 가엾게 여겨 부엉이(올빼미)로 변신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부엉이는 낮이 끝나고 어둠이 깔려





미네르바의 부엉이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을 때 활동하기 시작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 라는 말은 헤겔^{Georg Wilhelm Friedch Hegel}이 《법철학》 서문에 한 말, 즉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서야 그 첫 날개를 편다" 라는 말에 의해 유명해졌다. 무슨 뜻일까? 이 문장에 이어지는 《법철학》 서문의 문맥을 조금 더 살펴해보도록 하자.

철학은 늘 너무 늦게 도착한다. 철학은 세계의 사상인 이성(절대정신)이 그 형성 과정을 끝내고 난 뒤에 비로소 철학의 시간 속에 나타난다……. 철학이 회색에 다시 회색을 덧칠할 때 삶은 이미 늙어버린 모습이 되어 있다. 잿빛에 잿빛을 덧칠하면 그 삶의 모습은 젊음을 다시 찾지 못하고 단지 인식될 뿐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서야 그 첫 날개를 편다.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나 헤겔에게 철학은 앞날을 미리 예측하게 하는 새벽의 학문이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조건 아래서 비로소 그 뜻이 분명해지는 저녁의 학문이다. 자유는 모든 것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며, 진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물을 파악하는 사유다. 만일 국가의 권위나 종교적 도그마에 얽매인 사유를 하게 되면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유는 자유로운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진리란 무지와 몽매와 왜곡과 편견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혜는 우리를 묶어두는 역사적 조건이 사라진 다음에야 찾아온다. 그러니 철학은 이미 일어난 일을 해석하여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의 발걸음은 늦을 수밖에 없다.

대략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러나 헤겔은 오독(誤讀)의 철학자다. 어렵고 모호하고 회미하다. 그래서 영어에서 'sound like Hegel' 이라고 말하면 '애 또 뭘 소리를 하는겨?' 라는 뜻이 된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가보자. 미네르바의 부엉이에 맞서는 개념이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갈리아의 수탉'이다. 서양인들은 갈리아 지역(지금의 프랑스)이 닭의 원산지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닭을 '갈리아의 새' 라고 불렀다. 갈리아인들은 고대부터 수탉을 새벽의 새로 신성시했다. 수탉은 갈리아의 신으로 숭상되기도 하고 갈리아 군대의 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도 수탉이다. 눈을 뜨고 보면 도처에 신화가 현현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갈리아의 수탉' 은 마르크스가 헤겔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낸 맞불 개념인데, 수탉은 아침에 울어 세상을 깨운다. 철학은 새벽의 학문이라는 것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에 앞서 그것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늘 현실이 다 지나간 다음에야 따라오는 늙은이의 지혜가 아니라 실천과 행동에 의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유명한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속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만 해왔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철학자의 사명은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혁명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 역시 갈리아의 수탉이 등장하는 전후 문맥으로 살펴보자.

종교적 비참은 현실적 비참의 표현이자 현실적 비참에 대한 항의다. 종교는 근궁한 피조물의 혼수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며, 또 정신없는 상태의 정신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철학이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그 물질적 무기를

발견하듯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철학 속에서 그 정신적 무기를 발견한다…… 모든 내적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독일 부활의 날은 '갈리아의 수탉'의 울음소리에 의해 고지될 것이다.